

Note Of Business Analysis

NØBA

VOL.14 금융산업

KWANGWOON
UNIVERSITY

영화 '빅쇼트-서브프라임 사태'로 본 금융 산업



영화를 보기 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미국 경제가 망했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주춤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금융 지식이 무지한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점을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고들고 있다.

영화는 모기지 대출로 시작한다. 모기지 대출이란 주택 구입 시 그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이 모기지 대출 이자로 은행들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기지 대출들을 묶어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이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이 채권 안의 대출들은 상환율이 높은 대출들이니, 투자자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당연히 이 채권을 구매했고, 은행들은 채무자들에게 한 참 뒤에나 받을 돈을 투자자들에게 미리 받은 셈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시 모기지 대출을 발행했다. 대형 은행들은 이렇게 채권 판매 수수료로 수십억을 벌었다.

그러나 이 모기지론 채권들은 금방 동이 나게 된다. 살 주택도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상환율이 높은 채무자들은 보통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곧 은행들은 머리를 굴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만든다. 서브프라임이란, 미국 신용도 기준 제일 낮은 신용도를 의미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이름 그대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받은 모기지 대출들을 묶어 담보로 발행한 채권 상품이다. 이것이 시발점이었다. 은행들은 채권 판매 수수료에 눈이 멀어 아무 조건 없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영화 속에 이를 반영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먼저 LTV(Loan To Value ratio)이다. 영화에서는 투자 전문가인 '마이클 버리'가 'LTV 95, LTV 90...', 'LTV110?!'이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다. LTV는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대사에서 예를 들어 LTV 95는 집값의 5%만 내가 내고, 나머지 95%는 다 대출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세를 등에 업고 모기지 브로커들이 나타나는데, 영화 속에서 이들이 한 대사에도 '닌자 대출(No Income, No Job or Asset)'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말 그대로 수입이나 직업, 자산이 없어도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은행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얼마나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는지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데, 집이 5개에 콘도가 1채 있는 스트리퍼는 그녀의 애완견 이름으로도 대출이 가능했다. 추가적으로 이 브로커들 또한 금융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로,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사기'를 친 것과 다름 없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기지 대출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속에서는 저소득층 사람부터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문가들까지 모두 부동산 호황을 맹신했고, 집 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밝혀지듯이, 이 부동산 호황은 거품임이 밝혀지게 된다. 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상환율이 높은 AAA등급이라고 속여 팔았지만 실은 상환율이 아주 낮은 저소득층들의 대출로 이루어진 채권임이 점점 드러났다. 은행도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증을 해주던 채권들과 달리 민간이 보증을 해주는 채권이 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영화 속 자레드 베넷은 은행들이 이 채권들을 보기 좋게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파이어 스코어'¹가 바닥을 치고 있고, 변동금리 상품²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결국 종합하면, 상환율이 0%일 수도 있는 채권들을, 은행은 등급을 속여 팔고 있던 것이다.

그럼 대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은행은 이걸 어떻게 속여서 판매했을까? 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f Obligation)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부채담보부증권이란 베넷이 말한 말도 안 되는 채권들을 모아 담보로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 CDO로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채권들을 포장했을까? 은행은 상환율이 낮은 B등급 계열의 상품을 A등급 계열과 섞은 뒤 AAA등급이라고 속여 판 것이다. 이렇게 끼워 판 B등급 계열이 부도가 나면 묶음인 CDO 전체가 부도가 나지만, 만기까지 무사하면 기존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게 되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채권이었던 것이다.³

그렇다면 민간 신용평가사에서는 낮은 B등급이 끼여있는 채권임을 알면서 왜 AAA등급을 줬을까? 영화 속 '마크 바움'이 신용평가사를 찾아가 따지자 신용평가사는 주저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한다. '우리가 은행에게 등급을 안 주면 바로 무디스로 갑니다. 우리 경쟁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모두가 알면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이를 미리 알고 다른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나앉았을 때 20조 가까이 이익을 챙겼을까? 바로 영화 제목대로 '빅 쇼트'를 했기 때문이다. 빅 쇼트란 가치가 하락하는 쪽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은 근거 있는 논리적 사실을 통해 부동산 호황에 거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들은 이 CDO들을 '공매도'하기로 결심한다. 공매도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내다 팔고, 나중에 싼 값에 주식을 되사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다.

그럼 주인공들은 어떻게 공매도를 했을까? 바로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로 공매도를 한다. 신용부도스왑이란 채권이 부도날 경우 그에 버금 가는 돈을 받는 금융 상품이다. 한 마디로 투자액에 대한 보험인 것이다.

다시 신용부도스왑 얘기로 돌아와서, 당시 부동산 경기 호황을 맹목적으로 믿던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CDS를 체결하는 고객을 '호갱'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오기 전까지 프리미엄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으므로. 영화 속 주인공들도 경기 불황이 오기 전까지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이제 은행은 더 나아가 합성 CDO라는 걸 만든다. 합성 CDO란, 은행이 속여 판 채권인 CDO를매입한 투자자들이 CDS까지 매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부도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고 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를 영화가 쉽게 설명해준다. 탐 여가수인 셀레나 고메즈가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탔고, 더 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부동산 경기의 호황). 그를 보고 A라는 사람이 셀레나가 돈을 더 딸 것이라고 돈을 건다. 그리고 그 A가 돈을 딸 것이라고 B가 돈을 건다. 이런 식으로 돈을 건 사람들(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지만, 셀레나는 결국 돈을 따지 못 한다. 돈을 건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이다.

결국 은행이 사기 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그 파산한 투자자들 중 우리가 알고 있는 AIG, 리먼브라더스도 있었다. 주인공들은 당연히 남들이 투자하지 않는, 가치가 하락하는 곳에 집중 투자하는 빅 쇼트를 해서 큰 돈을 따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일은 정말 대단한 무용담일까? 영화 말미에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진정되었을 땐 연금, 부동산 가치, 퇴직금, 예금, 채권의 5조 달러 상당이 증발한 뒤였고, 미국에서만 8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6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밝힌다. 그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까? 모두 해체 되고, 사기의 주체들은 감옥에 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가 만들어졌을까?

영화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가 'Just Kidding.'이라고 말한다. 영화에서도 보여주듯, 되려 은행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너스를 두둑이 챙기고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이민자와 가난한 사람, 심지어 교사까지 닮았다. 감방에 간 은행 간부도 단 한 명뿐이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이렇게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은행과 그에 속아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명의 주인공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 하면 속기 십상인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가 시작할 때 '군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과 영화 중간에 나오는 '진실은 시와 같다. 사람들은 모두 시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영화를 다 보고나니 더 와 닿았다. 물론 우리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지만, '잘 될 거다'라는 맹목적인 마음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 보고 진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영화 속 한 장면이 머릿속에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아직 남아있는 도덕성에 스와프를 팔지 말지 흔들리는 마크에게 그의 동료는 '우리는 악당이 아니에요, 주택 마련의 꿈을 불모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어요.'라고 말하며 마크를 설득한다. 이런 마크마저도 결국 스와프를 팔고 2억을 챙겼다. 과연 금융에서 진정으로 도덕성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1 '파이어 스코어' :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숫자와 신용도는 비례한다.

2 고정금리와 다르게 금리가 변동하게 되면 소득 대비 대출금의 부담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된다.

3 영화 속에서는 유명한 셰프 안소니 부르명이 나와 쉽게 이를 설명하는데, 한 마디로 4일 전에 배달 온 썩기 직전의 생선을, 해물스튜에 넣어 새롭고 멋진 요리로 만드는 것이다. 시식자 입장에서는 이 생선이 썩었으면 배달이 나는 것이고, 썩지 않으면 좋은 요리를 맛본 것이 되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한국경제



2016년 상반기 최대 이슈는 ‘알파고’와 ‘브렉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세돌과의 바둑에서 이긴 ‘알파고’는 과학계와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브렉시트’는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ish와 탈퇴한다는 의미의 Exit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의 EU 탈퇴에 찬성하는 영국 국민들이 50%를 넘기며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영국의 런던은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와 더불어 세계 3대 금융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브렉시트가 확정 된 후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폭락했고 대신 일본의 엔화가 폭등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엔화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의 경제를 위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정책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대한민국 역시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았다. 우선 원화 가치가 유로의 가치 감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 국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영국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해외 투자자들 역시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브렉시트 결정 직후와 달리, ①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② 실제 브렉시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2년간 존재하며, ③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국의 정책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④ 브렉시트의 충격이 2008년과 같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결정 직후와 같은 금융시장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브렉시트 결정 직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1,150원 선이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7월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1,130원~1,140원 선으로 하락했으며, 2016년 9월 현재 환율은 US \$1 당 약 1,100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6~7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시도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문제 이외에도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영국과 FTA협상을 다시 체결해야한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해 제트유·운송기계 부품·석유·석유화학제품 등의 국내 수출 품목들에 0%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난 해 영국과의 교역 규모가 \$135억 1700만에 이르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지만, 영국과 새로운 FTA가 체결되지 않거나 EU와 체결했던 FTA보다 협상 조건이 좋지 않다면 영국과의 교류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을 하더라도 관세 철폐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외국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관련돼 있던 EU와의 FTA 조항들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가져야 한다.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한국과 영국 양국은 EU FTA 체결 조항과 같은 노선으로 협상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영국이 EU와 FTA를 맺더라도 EU내의 영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영국과 경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또한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브렉시트로 인해 기존 금융 중심지의 변화가 예상 된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금융 중심지 추진전략과 더불어 금융사의 해외진출 강화 노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2016년 9월 현재까지 영국이 EU를 탈퇴한 직후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다 할 충격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보다도 삼성 전자의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7’이나, 한진해운 등의 조선 산업, 해외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어쩌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렉시트의 여파가 어떻게 커질지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EU 내에서 영국은 독일, 프랑스와 더불어 EU를 먹여 살리는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며, 국가 부도 위기인 그리스 역시 EU를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EU는 IS 테러와 더불어 난민 문제도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켜 봐야 할 것이다.

핀테크 그게 뭔데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모바일 쇼핑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때, 모바일페이를 이용하면 일일이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돈의 이동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페이는 바로 핀테크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 모바일 세계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핀테크가 뭘까? 핀테크(Fintech)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스마트 기기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예금과 대출 및 자산관리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IT기술을 통해 처리하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성공사례는 페이팔이다. 페이팔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고 신용카드만 연동해놓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간편함과 안전성 모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핀테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2014년 말에 2015년 산업 전망이나 IT 트렌드 조사에서 빅데이터와 IoT, 클라우드와 함께 10대 인터넷 산업 이슈로 조망 받으면서 급부상한 산업군이다. 핀테크가 이슈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 시중 은행 6곳은 신입 IT 인력을 139명 채용하였는데 이는 은행의 전체 합격자 1,779명의 7.8%에 해당한다! 또한, 면접 시 주요 질문 키워드로 '핀테크'가 꼽힌 것을 보면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2008년 즈음부터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지급 결제에 대부분을 투자하였지만, 점차 데이터 분석과 개인 자산 관리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야 지급 결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핀테크의 정의와 효과



금융산업에서의 파급효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온 4대 핀테크는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②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도입, ③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확산, ④ 보험산업의 디지털화이다. 이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 은행과 달리 물리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영업망을 통해 오프라인 지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최소화하여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신금리와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과 고객에게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로봇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객의 정보(재정상황, 투자성향)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산관리사의 주관이 아닌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명한 자산 규모의 제한이 없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한 대중성 등의 장점으로 기존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정보가 포함된 원장을 특정 금융회사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모든 참여자가 거래기록의 보관 및 갱신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시스템보다 효율성과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보험산업의 디지털화는 단어의 뜻 그대로, 핀테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의 디지털 기술이 보험 서비스의 가치사슬에 광범위하게 접목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특화 서비스를 구축하고,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험산업에 적용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되는 청년취업률 감소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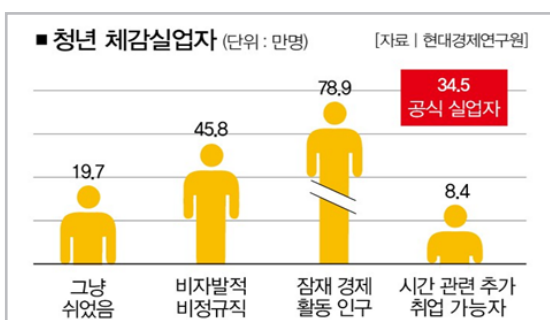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15~29세) 실질 실업자 100만 명 시대라고 한다. 젊은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자란 뜻이다. 자아실현의 꿈이 꺾인 청년 세대들은 ‘헬(hell)조선’ 즉, 지옥 같은 한국이란 말로 자신들의 취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를 ‘잉여인간’으로 만든 유례없이 심각한 취업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누군가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데,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며 힘든 일을 피하려는 성향을 탓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처우, 임금 등이 하늘과 땅 차이다.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게 노동 시장의 현주소이다. 이를 감안할 때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을 선호하는 것만을 탓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청년 실업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때마침 박근혜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이 17조 53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청년들이 예산 증액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 거란 목소리가 과반수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예산 대부분이 직업훈련이나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심층 평가에 따라 중장기 고용 효과가 높은 부문에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주장한 대로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라면 당장 효과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통해 과연 취업난을 얼마나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 현 정권 들어 8.02%로 반등한 뒤 2014년 9.05%, 2015년 9.17%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수치는 2000년 들어 최고치이다.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전체 청년실업률은 2013년 13.47%에서 2014년 12.54%, 2015년 11.56% 등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현 청년실업 사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은 고용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은 “청년 문제는 세대가 아닌 시대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갈등마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경제 약자인 청년층과 노인층을 사회가 모두 꺼안으려면 경제를 활성화해 고용시장을 확대하는 길이 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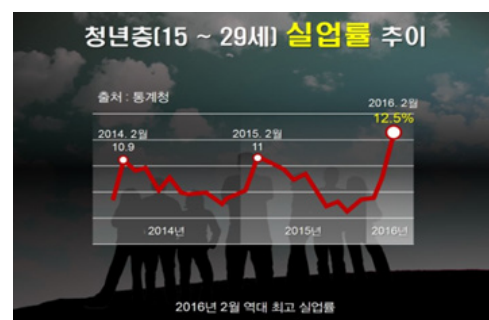


대학 취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괴리

요즘 대학들의 최고 고민은 취업률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에 취업률은 각종 사업에서 대학들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따라서 취업률이 낮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멀어진다. 그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취업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한 마디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5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정부기관인데도 기획재정부 소속인 통계청의 관점은 교육부와는 사뭇 다르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10% 수준을 오르내린다. 지난 6월의 청년실업률이 10.3%였고, 7월은 9.7%였다. 교육부의 취업자 정의가 지나치게 좁아서 문제라면, 통계청의 취업자 정의는 지나치게 폭이 넓어서 문제다. 통계청이 내리는 취업자 정의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다.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돕는 경우도 모두 취업자로 포함된다. 취업이라고 간주하기엔 부적절한 경우까지 모두 취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청년실업률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들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경제활동인구란 노동 능력과 노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느냐의 여부다. 즉 취업을 하려고 원서나 이력서를 접수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당장 이력서를 넣지 않은 사람, 취업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등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므로 실업자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주당 1시간만 일했다고 치자. 이 사람은 그 순간 취업자로 계산된다. 정부의 통계는 취업자로 계산되기는 수월하지만 실업자로 계산되기는 어려운 공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한진해운의 몰락

대마불사의 함정에 빠진

한진해운

지난 8월 31일. 한진해운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율협약 단계를 통해 몇 개월 동안의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에 실패하여 추가 자금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해운산업에서 국내 1위, 세계 7위의 자리를 지켰던 거대 기업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갔다.

‘대마불사(大馬不死)’. 영어로는 ‘Too Big To Fail’.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란 의미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을 너무 믿었기 때문일까. 한진해운은 뭐 하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몰락했다. 지난 해 하반기 부채비율이 600%가 넘어가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 4월에 자율협약에 들어가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사태를 방관하고 책임을 산업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냉정했고 결국 한진해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극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외부환경이다.** 김대중 정권시절 한진해운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선박이나 선박과 관련된 시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유한 것들에 대한 부채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책에 따라 한진해운은 어쩔 수 없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유한 선박과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보유 선박이 줄어들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화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때 해운사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책으로 용선료 인하에 집중했다. 대형 해운사들의 승자독식을 노린 치킨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세계금융위기 이전 호황기일 때 비싼 용선료를 주고 장기계약을 하여 점차 적자를 보게 됐다.

두 번째, 정부의 무능력함이다. 자유경제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수록 긍정적이지만,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운 산업같이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은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한진해운이 선박을 팔아먹게 만든 전적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한진해운의 채권단을 설득하거나 화주 기업들에 용선료 인하 협상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버렸다. 그 결과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외국 해운사들만 배를 불리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저해했다.

세 번째, 전문경영인의 부재와 그에 따른 방만 운영이다. 최은영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진해운을 이끄는 동안 부채비율은 405%에서 1,460%까지 치솟아 올랐다. 2014년에는 조양호 회장에게 위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심지어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유수홀딩스로 계열사를 분리해 일감 몰아주기, 사육 임대 등으로 연간 수백억씩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기업을 구렁텅이에 빠트린 것에 대한 책임도 일절 지지도 않았으며, 현재 국정감사에서 눈물 쇼를 보이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로 여러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채권단 또한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사태가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은 물류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한다면 앞으로 한진그룹은 여신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계열사 전체의 신용도 하락을 불러일으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산업을 보호하지 않았고 해운 사업이 계속해서 불황인데도 구조조정을 이끌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운영이 근시안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의 유동성이 줄었지만, 그 와중에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개편, 자산 헐값 매입 등을 통해 오히려 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었다. 그러고도 산업은행과 정부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너무 비열한 태도가 아닐까.

이동환 선배 인터뷰



학 과 경영학부 05학번 **학 점** 3.8
어 학 TOEIC 800 초반 **직 장** 한국투자증권
자 격 증 금융 3종 자격증(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대외활동 모의투자대회, 금융감독원 패널, IMBA 수강 홍보대사
인턴경험 유진투자증권 본사 인턴

Q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05학번 이동환입니다. 2012년 9월에 졸업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상품전략부에서 대리로 근무 중입니다.

Q 한국투자증권 어떤 회사인가요?

은행계열인 NH투자증권, 현대증권, 대기업 계열인 삼성증권, 산업은행 계열인 대우증권 등 대형증권사들과는 다르게 한국투자증권은 독자적인 증권회사입니다.

Q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실제 취업 준비할 때부터 은행 혹은 증권 계열만 지원했습니다. 원래 주식, 증권 같은 곳에 관심이 많아 주식도 대학교 때 했었고, 시장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2학년 때부터 이쪽으로 길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와 같은 자격증을 땀습니다.

Q 상품 전략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보통 직원이 고객들 자산관리를 하는데 그 직원에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에서 어떤 상품이 좋다 같은 조언을 해주는 저희는 상품 위주입니다. 펀드나 ELS 등을 위주로 각각 전망을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해서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업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 관리 파트입니다. 지점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차분하게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어울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이 상품을 사야 하는지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부서에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Q 한국투자증권의 직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지점 영업, 본사관리, 본사 영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사 영업은 회사채 인수나 무상 증자 등을 담당합니다. 본사 관리는 지점 영업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로 주식만 하는 직원과 주식과 금융상품 모두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사 영업의 경우 신입사원을 선발하기는 하지만 학력과 스펙을 많이 봅니다. 지점 영업 또한 금융권이어서 그런지 학력들이 대부분 높습니다. 본사 영업이나 본사 관리, 특히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곳은 학벌의 제한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Q 한국투자증권의 사내분위기나 연봉을 포함한 복지 수준은 어떤가요?

기본적인 복지는 다 주고 회사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편입니다. 초봉은 상여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야근이 전혀 없습니다. 금융권이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국 투자 증권사의 평균 근무 기간은 10년 정도로 가장 김니다. 이는 수명이 짧다기보다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Q 한국투자증권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사의 성과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것에 있어 보상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현재 성과제 도입으로 인해 말이 많지만 저희는 이러한 문화가 오래 전부터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상과로 인해 권고퇴직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만 높을 뿐입니다. 또한 저희는 계약직 및 인턴을 전혀 뽑지 않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경우 텔러는 계약직으로 고졸만 뽑지만 저희는 텔러 또한 대졸만 뽑으며 2년 계약직이지만 무조건 2년 후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Q 실무를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영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상품을 추천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받고 정리하는데 저희는 캐나다의 독립된 리서치 회사에서 정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국문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합니다.

Q 회사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인성, 특히 예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나 회사에 처음 들어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인성은 단기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 사람들 간의 예의는 서로의 인상을 좌지우지 하는 데 대표적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 입사하였을 때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보던 인사만 잘하고 다니라 하셨습니다.

❶ **선배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업에 있어 말씀드리자면 인턴 활동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단순 사무가 아닌 대리가 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던 활동들이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서류 합격 후 면접 스테디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내 면접 스테디가 아닌 그 기업에 지원하는 혹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스테디를 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❷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생활 했던 것 중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요?**

교내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짧지만 경영대 금융 스터디인 KwuSFI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생활보다 대외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패널, 인터넷으로 MBA 수강할 수 있는 업체 홍보대사를 하면서 MBA 수강도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증권 산업에 초점을 맞춰 준비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❸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향이 없습니다. 주식은 알려지지 않은 악재에 반응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예측되는 소식으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변동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예상 중인 것은 0.25~0.5%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1% 이상 올리게 되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❹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나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확정되었던 그 당일에는 영향이 컸습니다. 그날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4%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인데 영국으로의 수출은 별로 되지 않고, 영국은 제조업 중심이 아닌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금융 기업들이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재로써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❺ **인공지능 개발에 따라 증권 업종에서 일자리가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계가 하지 못하는 나만의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실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리스크가 많은 것이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계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❻ **투자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투자 상품이나 기업에 대해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리스크 요인의 해결 가능성을 판단하여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빨리 찾아서 남들보다 빨리 준비한 편입니다. 금융, 증권 관련 자격증을 따고 대외활동 또한 그 쪽으로 한 길을 닦았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다른 대기업들도 써 보았지만 서류 통과조차도 하지 못했으나 은행, 증권 계열의 경우 거의 서류 통과를 다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전형에서의 자소서 쓰는 것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쓰는 것이기에 때론 나만의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1974년 8월 한국 투자 신탁으로 시작하여 1984년 3월 제2금융권 최초로 폰뱅킹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증권사로 전환해 한국투자신탁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3년 6월 현재의 상호인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 업무이다.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는 19조 5,558억 원에 이르며, 113개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다. 자회사로는 런던현지법인, 뉴욕현지법인, 싱가포르현지법인, 홍콩현지법인, KIS Vietnam(베트남현지법인), 진우(북경)투자자문유한공사,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데보니안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밸류자산운용을 두고 있다. 2013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NOBA 멘토링

김재식 선배
인터뷰

❶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08학번이고요 이름은 김재식이라고 하고 올해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수협은행에 입사해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❷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극복했던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공부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다니면서 꼼꼼히 했던 것 같아요. 따로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2학년 때부터 금융권으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보통 경영대 학생들은 경영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인증을 안 하고 재무나 회계 쪽으로 치중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쿠퍼스에 들어가서 스터디 활동도 했지만 학교 안에서는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증권사를 가고 싶어서 증권사 쪽으로 리서치(research)도 하러 다니고 증권사에 진출해서 일하고 계산 분들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그 외의 활동은 밖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한건 아니지만 제가 하려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에 선배가 많이 없었니까 다른 학교에 선배를 찾아갔죠. 저는 그게 약간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저를 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많이 없었니까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❸ 수협은행은 일반기업, 주식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인걸로 아는데 그런 수협은행만의 매력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작습니다. 타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다보니 직원한테 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점을 보고 입사를 했습니다. 다른 은행은 몇 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지점영업을 가보게 되면 항상 주어진 한 업무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투자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은행만이 할 수 있는 투자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양투자업무도 하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위탁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으로는 다른 운용사는 못가도 현재 경험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❹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수협은행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월급이 다른 은행에 비해 적습니니다. 또, 직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시스템 같은 게 잘 구축이 안 되어 있어 수작업 해야 하는 게 많으면서 업무량은 다른 은행과 비슷한 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야근도 잦고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업무나 다른 프로젝트에 지원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습니다. 예를 들어 타 은행에서 외환업무를 한다거나 기획업무를 한다고 하면 경험자 위주로 선발하겠지만, 수협은 그와 비교하여 기회가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❺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외환업, 수출수입 무역 대금결제, 관련 신용판정, 외화예금, 해외기업투자 외국환 관련 신고업무, 기본적인 창구 예수금 업무, 펀드, 여수신,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❻ 사내분위기 연봉을 포함한 복지수준은 어떤가요?

지점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지점의 경우 낮은 연봉대로 소통이 잘 되는 분위기라 좋습니다. 동료들의 연배가 비슷하다보니 얘기도 잘 통하고 업무 관련지식을 배울 때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보다는 연봉이 적은 수준이고 국가에 채무를 진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나 연금을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수협 중앙이 따로 분리하여 수협업무와 중앙업무가 나뉘진 상태라서 대출상환 위험 때문에 다른 은행과 비교해 복지나 연봉은 적습니다.

❼ 일을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대하는 업무이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소모가 심하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다보면 개인마다 가진 가치관도 다르고 관점도 달라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 한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에서 오는 위험을 감당하고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환율 상황은 제 노력이나 혹은 회사 노력으로는 절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변화에 따라서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회사 내에서 버텨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동료들과 잘 지내면서 회사생활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은행의 경우 혼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각자 맡은바 임무를 다 해야 업무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불장군으로 군림할 게 아니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어업인들이 조직하는 1차 단계 협동조합인 지구별조합·업종별조합·제조업조합과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2차 단계 협동조합인 중앙회로 구성된다.

일정한 지역(시·군 등)을 단위로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

❶ 금융권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갖춰야할 자격요건은 어떤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생 때 생각하기에는 금융권이라 하면 자격증들이 많이 있고 좋은 스펙을 갖춰야지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갖추려고 그런 걸 하나 둘씩 했었죠. 근데 막상 서류는 회사에서 원하는 일정 수준만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은행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권사 쪽을 생각하고 있었고, 은행보단 증권사 쪽이 스펙을 더 많이 보는 쪽이어서 준비를 하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증권사에 가려면 자기만의 특색이 있어야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은행 쪽은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영어영문학과 나와서 은행에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 어떤 선배는 체대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보편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성이나 해당업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이나 증권사 쪽에 가고 싶으면 자신이 그쪽으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주식 같은 거나 관심을 가졌던 것을 어필하거나 시사적인 지식을 준비 하는 게 다른 자격증이나 스펙 같은 기준을 맞추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면접이나 상식 등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❷ 대학생 시절 경험이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교내 활동은 거의 안했지만 준비할건 준비하면서 재밌게 즐겼던 거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학생 때 인간관계를 유지한 능력이 밑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자체가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외 활동이나 학교생활에서 그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이 꼼꼼한 편인데, 규율이 중요한 은행업에는 적성이 잘 맞는 거 같습니다. 규율이나 규칙을 따라가고 맞추는 것에 익숙하고 원활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❸ 금융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기 악화, 상품 이익에 대한 부담감, 기타 시장을 위협하는 사건 때문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융산업이 시장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전망 자체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겠지만 정말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설사 천운이 따라서 취업이 된다고 한들, 업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힘들 겁니다.

❹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면접을 볼 때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당연히 미국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갈 것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차원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의한 가계부채문제가 나타나 경제 자체가 침체되면서 소비활동이 낮아져 제품,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또한 서비스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기업들도 줄어드는 소비로 인해서 역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 확대를 실시하면 임시방편을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고 가계, 기업에 의한 대출 상황이 되지 못하여 경제적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❺ 북한 도발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일시적으로 증시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어 예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일부러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시 변동을 이용하여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죠.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미미한 영향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일상적인 도발수준에서는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❻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서 같은걸 쓸 때 후배님들이 직접 써보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하나 둘 써보다 보면 자신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이벤트들이 떠오릅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벤트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알아야 해요. 모든 경험이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대외활동을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면접을 볼 때에는 그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회사 직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연결시켜서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행한 활동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일을 연결해서 '내가 회사에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 면접관도 의지를 느낄 거예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경험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학벌도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해당업무와 잘 연결을 시키고, 꼼꼼이 생각해서 자신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지를 고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자소서도 써지지도 않고 면접 갔을 때 외운 거를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토익을 몇 점 더 올린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더 쌓아올린다거나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하인리히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삼성의 노트7 사태나 한진해운이 몰락한 사건에서도 관련자들만 아는 아주 작은 징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별 일이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해버렸으니 사건이 터졌겠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법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민감한 조직이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군대에서는 안전과는 무관한 작업이나 활동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법칙을 인용하는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말만 번지르르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과거를 떠올리지 썩 달갑지가 않군요.

제가 이 법칙을 언급한 것은 안전사고를 조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인리히는 이 법칙을 사고에 관해 말했지만 저는 생각을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작은 성과를 29번 달성해야하고, 이 29번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번의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요. 나쁜 일도 300번의 징

후 끝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300번만 시도를 하면 뭐라도 하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1km씩만 걸어도 300번만 반복하면 그 거리는 총 300km입니다. 부산까지는 미치지 못 하지만 적어도 대전에는 충분히 닿는 거리이지요. 개별적으로 보면 1km 라는 거리는 광운대역에서 석계역까지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나면 그 동안 작은 도전 하나도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가만히 누워있어도 흐르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이룬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공무원에 합격하고 누군가는 회계사 자격증에 합격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벌써 취업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성공의 기준이 저런 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어떠한 성과를 달성한 이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성공의 기준을 떠나서 시도를 했고 성과를 달성한 점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꼭 이런 성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이든 학업이든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든, 일찍 시작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자격증이나 직무 관련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고, 단순 취미로 목표로 삼는다면 그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든 해야 하지는 않고 즐기는 일이든 일단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소설이 좋아서 소설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스스로 발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뜨기가 좋으면 실뜨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력이 올랐을 때 남들에게 선물해준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면서도 매우 놀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실없는 소리를 장황하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고 시작한 다음에 반복해보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진로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거 같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한 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사소한 징후로부터의 사고의 법칙을 규정한다면, 그 반대로 성공도 별 거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샤이아라보프'가 찍은 동기부여 스피치라는 동영상 있습니다. 동영상 내내 과장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Just Do It!"을 외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우스운 모습과는 다르게 메시지는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이 남들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의미가 진실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Editor's Letter



만드는
사람들

분석팀 정인상 (경영15) 최승민 (경영15) 서지선 (경영14) 안젤라 (경영15)
취재팀 정은주 (경영15) 김혜성 (경영15)
편집장 박동혁 (경영11)

지도교수 이효정

#문의사항 및 가입안내 010-6656-3517(편집장 박동혁)